

이와미 성터

이와미 성은 1500 년대에 이와미 은광과 광산의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마을 니마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지대 요새입니다. 니마는 1520 년대 후반부터 광산의 지배권을 놓고 다른 적대 관계의 가문들과 다툼을 벌인 오우치 가문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와미 성은 해발 153m 높이의 절벽이 드러난 산인 류간산 정상에 지어졌습니다. 류간산 남쪽과 동쪽은 원래부터 가파르고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였지만, 좁은 산 정상에 있었던 천수각을 방어하기 위해 오우치 씨족이 능선을 따라 깊은 해자를 파고 여러 개 토루(흙더미)를 쌓으면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미 성의 입구는 경사면이 완만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를 통해 주로 남쪽에서 접근하는 적들로부터 니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00 년대 초기에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와미 성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연이 그 자리를 차지한 성터로는 남쪽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절벽을 따라 덩굴을 뻗는 능소화가 꽃을 피우며 언덕 중턱을 선명한 오렌지색으로 물들입니다.